정부 공유숙박 방안 내달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음

- 5.26일자 매일경제 인터넷기사 「'공유숙박'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」 등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-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
 - 개선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며,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보도

2. 설명내용

-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	책임자	과 장	박경덕 (02-3778-3430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동영 (02-3778-3476)
공동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수진 (044-203-2861)
		담당자	사무관	윤경미 (044-203-2862)